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영성 제목 : 영적인 사람 성경: 시편 3편

1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셀라)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3:1-8)

영적인 사람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인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운동선수는 몸이 튼튼하고, 연예인들은 감성이 풍부하다. 반면에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엘리트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facebook 네이버 블로그 발췌 ; 멘탈이 강한 사람: 그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도 남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변화가 두려워서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박지성 같은 사람? 유재석?)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은 전인적으로 건강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몸이 튼튼한지의 여부나 감성이 풍부함의 여부, 또는 정신력이 강력함의 여부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물론 특정한 영적 재능이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곧 건강한 영성은 아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가늠하는 척도는 아니다.

무엇이 영성이고, 누가 영적인 사람이며, 영적인 건강함이란 어떤 상태인가?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질이다.

하나님께 밀접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을 닮을수록 건강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다.

시편 3편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짐작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다.

1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적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적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줄 놓고, 심지어는 자신이 지켜 주어야 할 후궁들까지도 내버려둔채 도망하는 사람.(아마 후궁들이 도망에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랑도 식었을 것이며, 그들은 설마 암살름이 나를 죽이기야 하겠어? 하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비참함, 부끄러움, 실패, 처참함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고난과 처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는 특히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뒤따라올 때 그가 일부러 자신을 겨냥하고 악독을 발하여도 그의 말을 반박하거나 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으며, 변명하거나 숨지 않았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명명백백하게 수치를 당하고 있었기에 숨거나 변명하거나 욕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받아야 할 벌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였다.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호소한 것이다.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시니이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방패.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시는 분.

-나의 영광.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오직 한 분. 내가 관심을 쏟는

오직 한 분. 다윗은 스스로도 자신의 영광이나 체면, 자신의 품위를 하나님 보다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으며, 문지기였고, 목동이었으며, 신하였다.

-자기의 머리를 들어 주시는 분은, 자기의 체면을 살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특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 자녀가 부르짖을 때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그에게 살길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볼드심이로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단잠을 주신다. 깊은 잠을 주신다. 잠깐 높지만 피곤이 풀리게 하신다. 이것을 영혼의 안식이라 하는데, 오랜 잠이 풀리지 않는 피곤을 푸는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 풀리지 않는 피곤을 푼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당시의 다윗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죽느냐 아들이 죽느냐의 문제였다.

-두 사람만의 결판도 아니었다. 두 개의 큰 세력이 나뉘어 생명을

건 전쟁이 벌어졌다.

-왕위 계승이 순조로우면 모든 왕자들과 공주들은 대신이나 특권층이 되지만,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왕자와 공주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전쟁 상황.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시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3:1-8)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일의 결말을 내시는 분.

-그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나는 최선이지만, 상대에게는 그것이 최악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로 여기며 주께서 복을 내려 저주를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

<찬양예배>

주제: 4차원의 영성 제목: 거룩한 산 제사 말씀: 로마서 12장1-3절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12:1-3)

-몸을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드시고 맛있다고 하셔야 함;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함. 내 맘에 드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내 맘에도 만족이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희생의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하라. 영적인 예배는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는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손해보고 소비하는 것. 거룩한 소비.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산 제물.

-성령이 아닌, 내 생각, 내 의, 내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예배는 죽은 제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몸을 희생하는 예배가 산 제물.

2절. 세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세대를 분별하라. 판단이나 비판이 아닌, 분별이 중요하다. 분별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나의 행동 방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함.

-반면 비판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사람을 방어적이 되게 하며, 칼날을 세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출구가 없는 비판은 마귀적인 것이다.

3.마땅한 생각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그 이상의 판단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